



SARANG



기고문 02

새만금과 전북의 약속,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_ 추원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건축경기 침체 속 건축학도의 진로 고민과 미래에 대한 시선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 건축학과

건축사 인터뷰 03

'&' 에 담은 건축의 가치 _ 강태주 건축사 / (주)AND 건축사사무소

작품소개 04-06

배움이 있는 생활 속의 휴식공간 "상록도서관" _ 강현구 건축사 / (주)조형 건축사사무소
진도군 가족센터 "가화당" _ 남효정 / 건축사사무소 수, 장원득 / 건축사사무소 수디자인
소풍실버타운 노유자시설 _ 반진호 건축사 / 참하늘 건축사사무소

뉴스 07-09

광주건축사회 회장단, 광산·서구청장 상견례
제30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6점 발표
오는 10월 7~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도시문화제 개최
전남 신안군,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와 국제적 명성의 조각가 '박은선 작가' 홍보대사위촉
전남 영암군, 삼호시장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전주지역건축사회, 건축물 해체관련 안전 확보 등 방안 논의
전주지역건축사회 등 5개 단체,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성금 기탁
전주시 완산구, 건축인·허가 신속 추진 위한 업무 간담회 개최

답사기 10

풍피두센터 한화 &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 답사기

제30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11-13

사회공공 부문 최우수상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사회공공 부문 우수상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비주거 부문 최우수상 '이음재'
비주거 부문 우수상 '모서리 벽돌집'
비주거 부문 최우수상 'COTE'
비주거 부문 우수상 '광주기독병원 카딩턴라파 기념관'



건축 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6.9월호(202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새만금과 전북의 약속,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국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대 정부는 균형발전을 국정 목표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지역 간 산업과 투자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며, 지방소멸의 위기는 더욱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미래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신규 확장 거점을 광주·전남권 중심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며 많은 전북도민들은 아쉬움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전북 역시 국가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과감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북에는 대한민국 최대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평가받는 새만금이 있다. 넓은 산업용지와 우수한 항만·도로 기반시설, 재생에너지와 연계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은 반도체와 미래차,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집적하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북만의 손실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다.

특히 정부가 전북도민에게 약속했던 현대자동차의 미래차 산업 확장과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자동차 산업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여기에 반도체와 미래 모

빌리티 산업을 연계한다면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 제조업을 이끄는 중요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

건축사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산업은 공장만 들어선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이 정착하고 기업이 투자하며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와 주거환경, 교통망, 교육과 문화시설이 함께 조성되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새만금은 이러한 미래도시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공간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원칙 아래 전북을 더 이상 변방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상생의 관점에서 산업을 분산 배치하고, 새만금을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과감한 정책 결단이 필요하다. 현대자동차 관련 산업 확장과 반도체 산업 유치, 연구개발 기능 강화, 국가예산 지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때 전북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전북도민들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약속한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지역이 가진 잠재력에 걸맞은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는 특정 지역만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할 때 더욱 견고해진다. 이제 정부는 새만금의 가능성을 대한민국의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전북이 국가 미래 산업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단과 신속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추원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건축경기 침체 속 건축학도의 진로 고민과 미래에 대한 시선

최근 건축경기 침체와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설계와 건축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건축사사무소나 건설업계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특히 5년 동안 건축을 전공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막상 졸업할 때 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이 맞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반응도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건축 분야의 취업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공무원이나 공기업, 다른 직무 등 아예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학생들은 건축은 경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지금이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전공을 계속해서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건축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른 자격증이나 분야를 함께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현재의 건축계를 바라보면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의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건축이 앞으로 사라질 것인가'가 아니라, '건축을 계속 공부했을 때 내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건축경기 침체는 단순히 업계가 어려운 시기라는 의미를 넘어,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전공 선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더 단단하게 자신의 실력을 쌓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아직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만을 보고 건축의 미래를 단정하기보다는, 앞으로 건축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지켜보면서 내가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 건축학과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편집인 임현정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허만수
전담기자 김종문
편집위원 정영진, 김미리, 김종원, 강성구, 최기성, 설혜순, 오선화, 윤미순, 양청근, 최정미, 전준홍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6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후면 외 전면광고 : 500,000원
•하단광고 : 250,000원
•하단명함광고 : 150,000원

•구독료 : 무료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발전기금 : 1만원부터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 작품/독자만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6 / gjkira@empas.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에 담은 건축의 가치

(주)AND 건축사사무소 강태주 건축사와의 만남



강태주 건축사(광주)

건축문화사랑 '건축사 인터뷰'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건축사들의 걸어온 이야기를 전한다. 삶의 에피소드와 건축사사무소 창업기 및 앞으로의 포부를 동료이자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전하여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에이앤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태주 건축사입니다. 순천대학교 건축학부에서 건축설계를 전공했고, 이후 엔지니어링 회사와 건축사사무소에서 공공건축물 설계와 공동주택 등 민간개발사업의 기획·설계 업무를 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9년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2021년에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현재는 공공과 민간 분야의 설계와 감리를 맡고 있으며, 특히 민간개발사업의 사업성 검토와 기획설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대지와 사업 여건을 살펴보고, 건축주와 함께 계획을 구체화하는 일이 제 업무의 큰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꾸준히 일하면서, 맡은 일을 꼼꼼하게 살피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건축사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일했던 분들이 다시 믿고 찾아주신다면 그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Q. 건축사사무소 이름명을 만들 때 어떤 의미를 두고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에이앤디(A&D)'는 'Architecture & Design'의 약자입니다. 여기에 '그리고'라는 뜻의 'AND'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이어 간다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건축은 건축사 혼자 잘한다고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주가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듣고, 실제 사용할 사람들의 입장에 살피면서 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니까요. 보기 좋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쓰기에 편하고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지을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름 가운데 있는 '&'에는 어느 하나만 앞세우기보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자는 뜻을 두었습니다. 제 생각만 고집하기 보다는 건축주나 함께 일하는 분들과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무소 이름에도 그렇게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 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실무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동일한 법령이라도 지역과 허가권자에 따라 해석이나 보완 요구가 달라 업무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협의가 반복되어 건축주와 건축사 모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법령 해석과 인허가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비하고, 사전협의와 공식 질의회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책임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설계·감리 업무에 대한 대가는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범위에 맞는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계약에도 정착시켜야 합니다. 최근에는 경제활동과 개발 수요가 특정 지역과 분야에 편중되면서 지역 건축경기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역 건축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자원정책도 함께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Q. 설계 또는 업무하시면서 특별한 에피소드 있을까요?

광주 화정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설계가 기억에 남습니다. 강당의 기능을 갖추는 동시에 기존 교사동과의 관계, 학생들의 이동과 학교 운영까지 고려해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연결통로를 계획하면서 학생들의 하루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여러 학급이 함께 이동하는 상황, 우천 시 이용,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접근까지 살피며 동선과 출입구를 검토했습니다. 건물을 연결하는 방식이 일상의 안전과 편의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작은 부분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 건축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과 운동, 학교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내린 판단들이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고, 새 강당이 오랫동안 편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맡은 일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람과 함께 책임감을 느낍니다.

Q. 본인이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은 건축물이나 건축인이 있으실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지역 건축물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입니다. 대규모 문화시설이지만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옛 전남도청 일대의 역사와 시민들이 이용할 공간을 우선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주요 시설을 지하에 두고 지상에는 공원과 광장을 조성한 방식은, 새로운 건축이 기존 장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주변 도심의 보행 흐름을 이어받아 문화시설과 시민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점이 좋습니다.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지 않더라도 걷고 쉬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공공건축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와 공연의 성격에 따라 내부 공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당장의 기능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달라질 활용 방식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규모를 늘리는 데 서두르기보다 프로젝트 하나하나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한번 맺은 인연이 지속되어 다시 찾는 사무소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건축은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모여 완성되는 종합예술인 만큼, 구조와 시공, 사업성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 넓혀 가려 합니다. 그만큼 건축주에게 더 나은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AI 기술의 발전과 제도 변화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실무에 활용하는 한편, 법규와 현장에 대한 이해도 넓혀 건축주에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선·후배 동료들께는 각자의 경험과 고민을 조금 더 나누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서로 의논하다 보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익숙한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이어 가면서,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함께 일할 기회를 넓혀 갔으면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우고 협력하는 관계가 이어진다면, 지역 사무소들도 각자의 강점을 갖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주시 태정2지구 A-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광주 중앙근린공원1지구 어울림숲 공원내 건축물 도시정원센터



광주 봉산근린공원 공원내 건축물 복합문화센터



광주 화정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배움이 있는 생활 속의 휴식공간 “상록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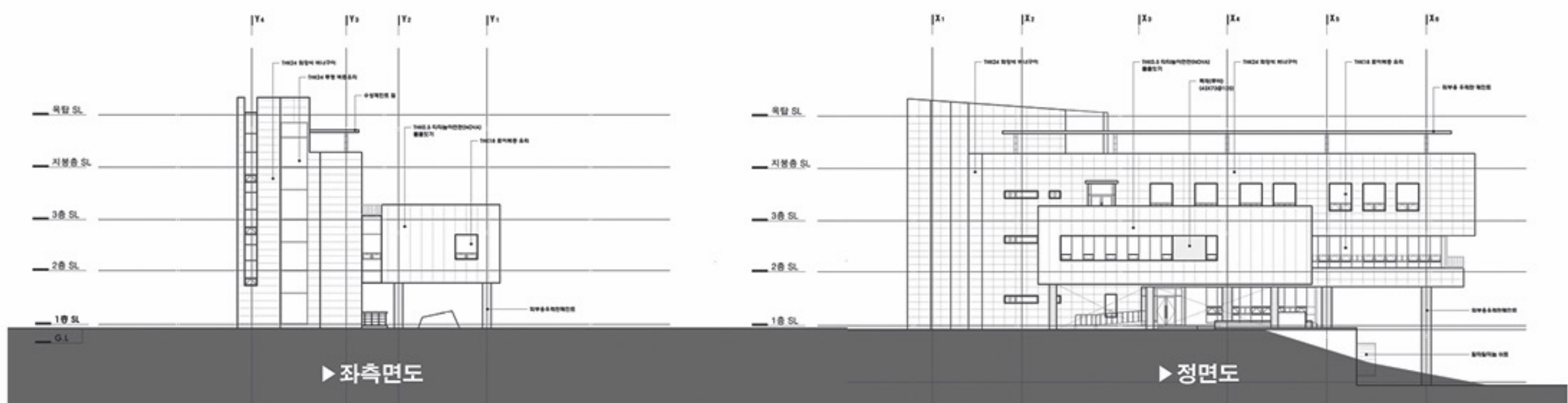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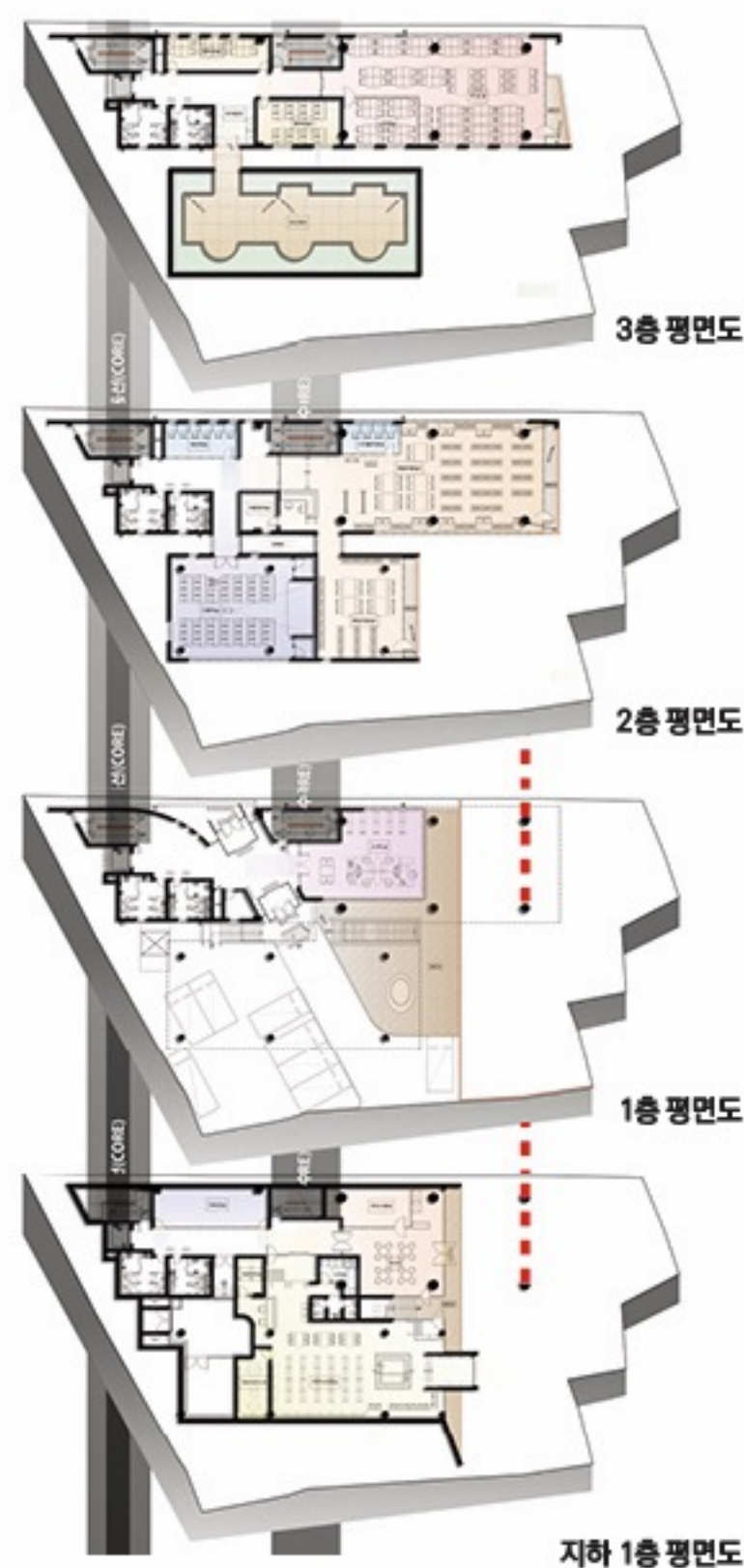
강현구 건축사 / (주)조형 건축사사무소
전남광주동남특별시 남구 효우2로26번길 13, 402호 / Tel. 062-653-8122

배움이 있는 생활 속의 휴식공간 '상록도서관'은 지역의 명소인 상록공원의 푸른 자연과 어우러져 주민들에게 친근한 삶의 쉼터를 제공한다.

건물 외관은 현대적인 선과 개방형 구조를 도입하여 공원의 녹지와 조화롭게 이어지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장벽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원통형 포인트 조형물과 넓은 창호는 공간에 창의적인 유쾌함과 활력을 더하고, 내부에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효율적인 도서·문화 공간을 배치하여 지식 탐구와 지역사회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단순히 책을 읽는 장소를 넘어, 공원의 자연을 담아내고 주민 모두의 편의를 도모하는 열린 생활밀착형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진도군 가족센터 “가화당”

남효정 / 건축사사무소 수
장원득 / 건축사사무소 수디자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22번길 30, 뉴캐슬주상복합상가 210호 / Tel. 061-283-7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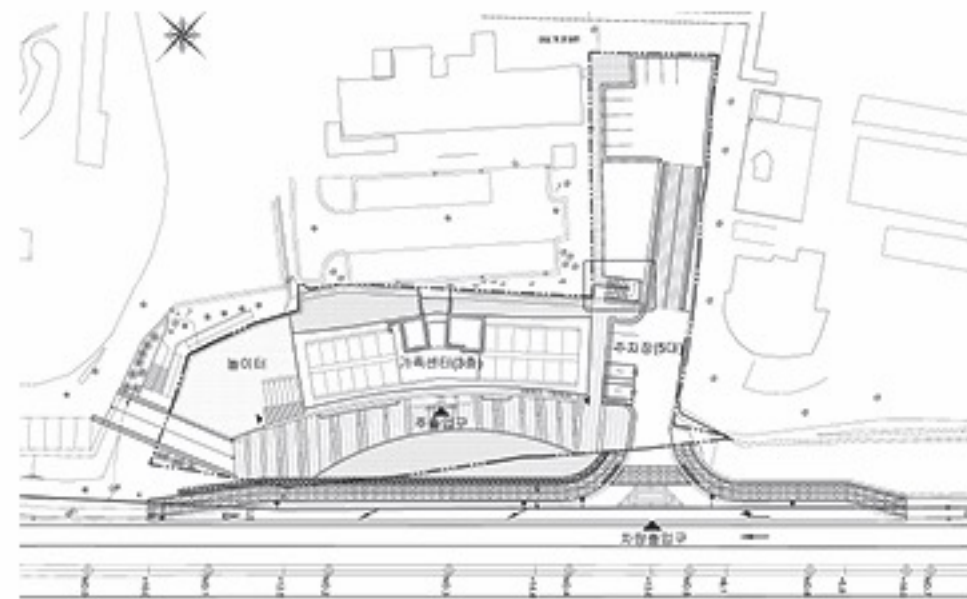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131의 5필지 / 대지면적 : 5,504㎡ / 건축면적 : 612.37㎡ / 연면적 : 1,586.75㎡
건폐율 : 47.62% / 용적률 : 18.84% / 규모 : 지장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T1.2 내진보연시스템패널, 테라코타

가화당

[가화: 佳話] : 사람을 감동 시킬 만큼
재미있고 좋은 이야기
[당: 堂] 터를 돋우어 지은 큰 집

전통이 살아 숨쉬는 진도무형문화재전수관, 진도아리랑시네마가 모여있는 진도의 문화 시설지구 중심에 가족센터를 세우려고 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살아가야 할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다가 예전 대가족 속에서 부대끼며 사회를 배우고 예절을 배웠던 우리의 집 한옥을 기억해냈다. 여기 이곳에 한옥의 공간을 재해석하고 현대적 감각을 더해 형상화하여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의 소통공간이자 자연으로 열린 가화당을 제안한다.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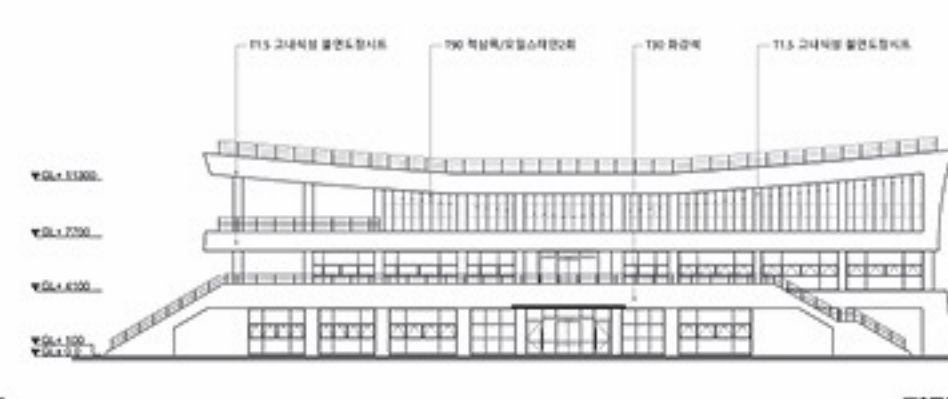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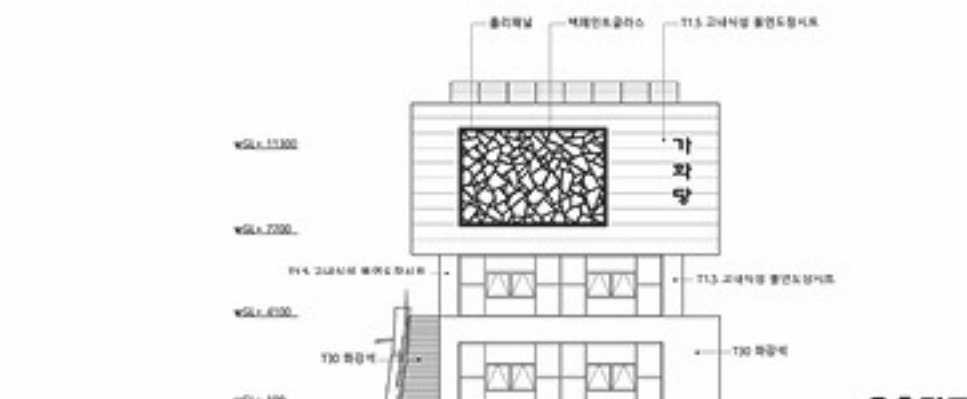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좌측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소풍실버타운 노유자시설

반진호 건축사 / 참하늘 건축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 469, 4층 / Tel. 063-851-7170

건축 스타일

중세 유럽의 클래식함과 현대적 편의성이 결합된 디자인

외관 특징

대칭 구조와 아치형 창문, 고풍스러운 모임지붕
따뜻한 파스텔 톤의 외벽과 석조 디테일로 품격 있는 분위기 연출
입구 포치는 환영의 공간으로서 정서적 안정감 제공

무장배 디자인

휠체어 접근성 고려한 넓은 통로와 경사로
실내외 조명과 바닥재 선택에 안전성 최우선

커뮤니티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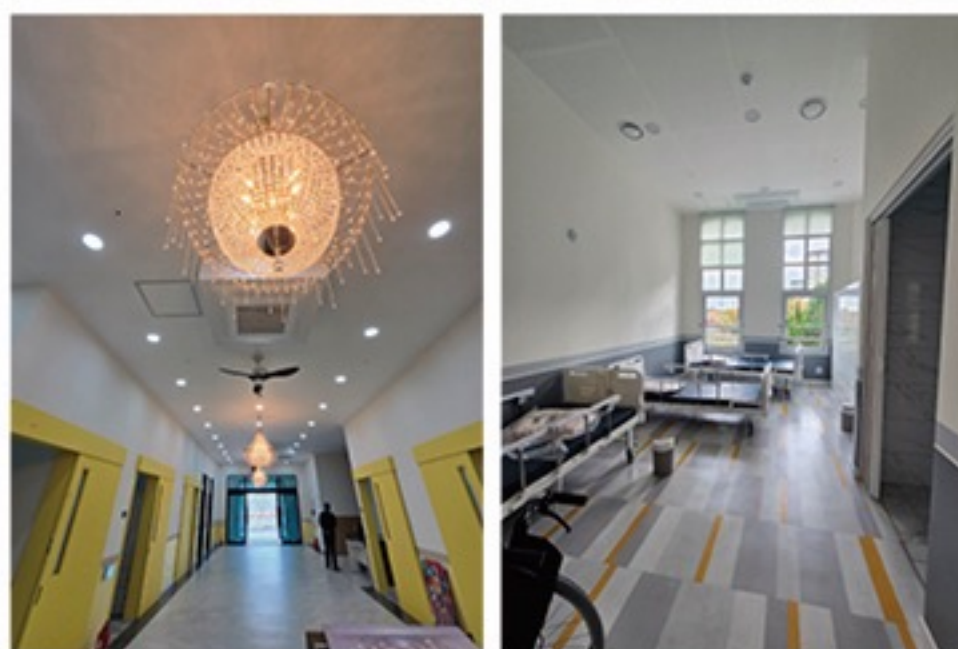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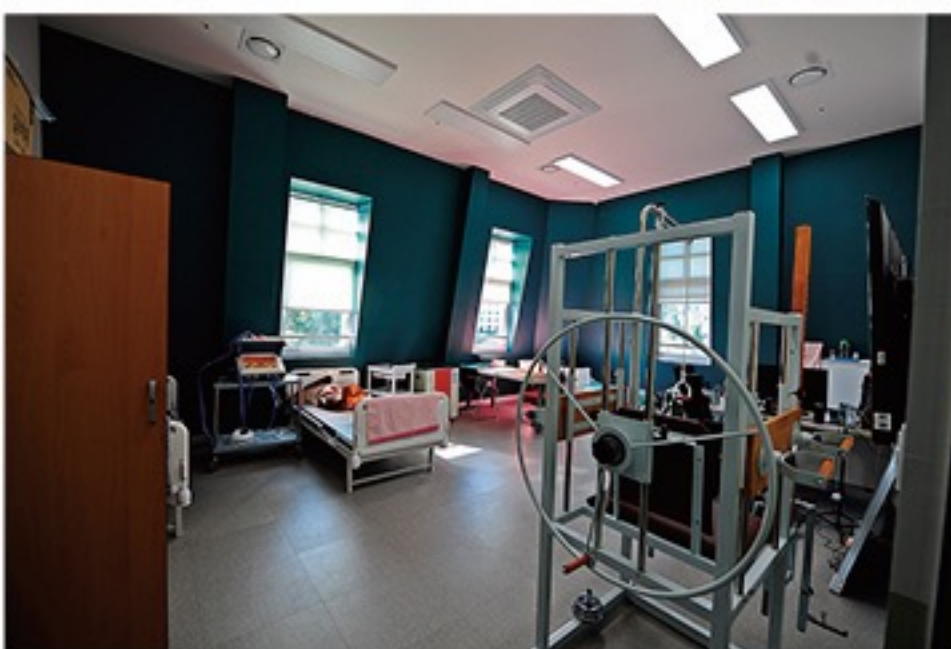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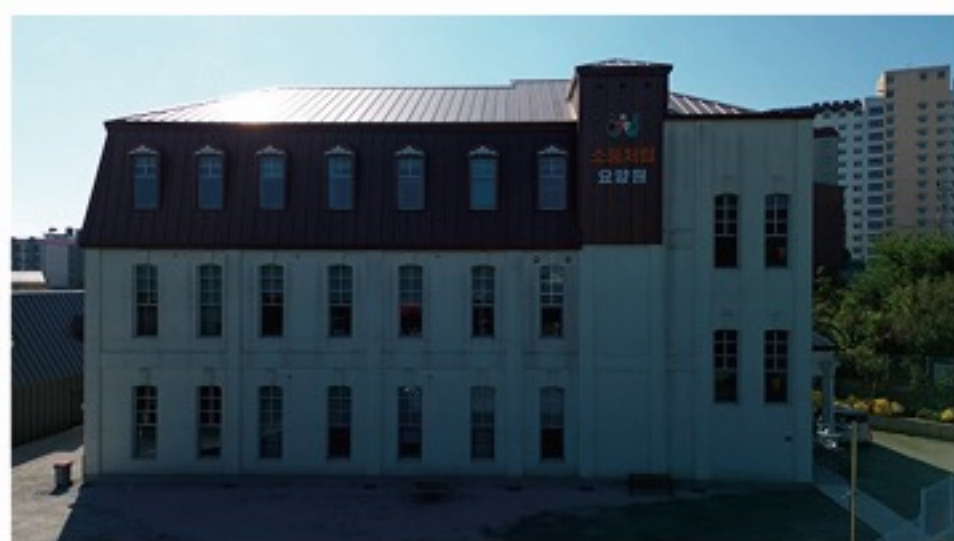
거주자 간의 소통을 위한 중앙복도, 프로그램실 마련
휴게실, 옥상의 중정 등 정서 회복을 위한 치유 공간 포함

개별성 존중

독립적 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크기의 객실 제공
개인 취향 반영 가능한 인테리어 선택 옵션

설계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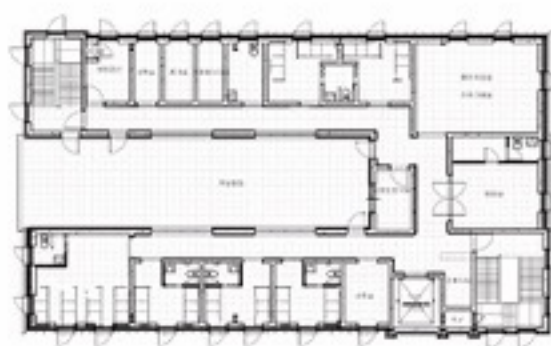
"삶의 질을 높이는 아름다움"을 콘셉트로, 고령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유럽풍의 고전적 건축미는 단순한 외형을 넘어서, 품위 있는 노후를 향한 사회적 존중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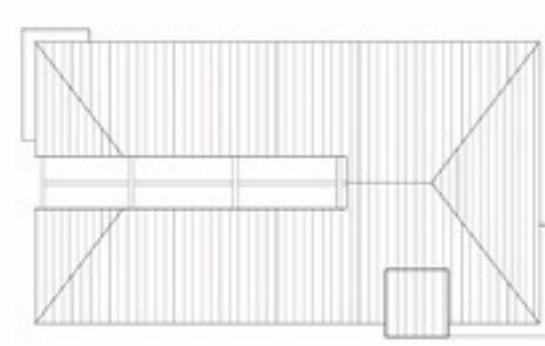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광주건축사회 회장단, 광산·서구청장 상견례

건축행정 현안 공유 및 상호 협력체계 강화 논의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8월 20일 광산구청, 28일 서구청을 차례로 방문해 각 구청장과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견례에는 강필서 회장을 비롯해 박진호·김민호 부회장, 5개구협의회장과 해당 구청 건축과장 및 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양 기관의 주요 현안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광주건축사회 회장단은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을 만나 지역 건축산업 활성화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건축계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의견 교류를 통해 건축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건축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필서 회장은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 구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지역 건축산업의 발전과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제30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6점 발표

부문별 최우수작 1점, 우수작 1점 선정해... 도시경관 품격 높여



(사진 = 사회공공부문 최우수작 '국립 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광주건축사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제30회 광주건축상' 수상작 6점을 발표했다. 올해 광주 건축상 부문별 최우수작에는 ▲사회공공부문 '국립 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비주거부문 '코테(COTE)'와 ▲주거부문 '이음재' 총 3점이 선정됐다.

우수작에는 ▲사회공공부문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주거부문 '모서리 벽돌집' ▲비주거부문 '광주기독병원 카딩턴라파 기념관' 3점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모에는 관내 건축물 가운데 10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작품 12점이 접수됐으며, 건축사와 대학교수, 공공기관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패널 및 현장심사 등 3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작을 확정했다. 사회공공부문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국립 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은 기존 박물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도 차별화된 공간 기획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구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주거부문 최우수작 'COTE'는 대지의 높낮이와 지형적 특성을 세심하게 반영한 조경계획과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의 흐름을 대지 내부로 자연스럽게 확장한 설계로 호평받았다. 주거부문 최우수작 '이음재'는 거주자의 동선을 고려한 공간 배치와 제한된 내부공간을 외부공간과 연계해 개방감과 공간적 확장성을 확보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작 패널은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시민홀에서 열리는 '제23회 전남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매우 어려운 건축불경기 속에서도 작품을 출품해주신 건축사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지역 건축사의 창작의욕을 고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7~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도시문화제 개최

'통합의 도시, 건축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건축 관련 단체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가 각각 추진해 온 사업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건축문화축제인 '제23회 전남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된다. 올해 문화제는 '통합의 도시, 건축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전남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건축사와 건축 관련 교수,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이다. 행사 기간에는 '2026 자랑스러운 광주건축인'을 비롯해 제30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품전, 광주건축사회 회원작품전, 타 시·도 건축상 수상작품전, 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작품전, 광주·전남지역 건축전공 학생 우수작품전 등 다채로운 전시와 건축 모형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대·조선대 건축학과 졸업작품전 성황리 개최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박진호 부회장 각각 참여



(사진 = 좌 / 광주대학교, 우 /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와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작품전이 지난 9월 8일과 10일 각각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졸업작품전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전공 역량과 창의적인 설계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로, 지역 건축사와 교수진을 비롯한 건축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작품을 관람하고 격려했다. 광주대학교 건축학과는 지난 9월 8일 호심관에서 '제38회 건축전'을 열고 졸업작품 전시와 우수작품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이 참석해 시상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테이프 커팅식에도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 조선대학교 건축학과는 9월 10일 제1공학관 홀에서 '제80회 졸업작품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호 부회장이 참석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에 대한 시상식과 국내 건축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이 함께 마련돼 학생들이 건축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진로를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시민을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별점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전남 신안군,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와 국제적 명성의 조각가 '박은선 작가' 홍보대사 위촉

2027년 개관 예정 '인피니토 뮤지엄' 통해 신안의 문화·관광 가치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전남 신안군은 지난 11일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와 국제적 명성의 조각가 박은선 작가를 신안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자은도에 건립 중인 신안군립미술관 '인피니토 뮤지엄'의 건축·예술적 가치와 신안의 문

화관광 자원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함께 마련된 전시에서는 미술관의 설계 디자인과 건축 모형, 박은선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며, 2027년 개관을 앞둔 신안군립미술관을 유럽 미술계에 처음 공식 소개한다. 미술관은 자은면 둔장해변 일원에 부지면적 9,137㎡, 연면적 3,513㎡,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 마리오 보타와 박은선 작가는 '때 묻지 않은 섬, 바다와 어우러지는 건축물'을 주제로 디자인에 참여했다. 신안군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과 미술관 건립을 계기로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과 관광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신안을 국제적인 문화예술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남 영암군, 삼호시장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좁은 부지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 배치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사진 = 영암군청 제공)

영암군은 지난 19일 삼호시장 조성사업 건축설계공모 심사를 열고 김병수 건축사(강천 건축사사무소 / 전북)의 제안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삼호시장은 삼호읍 용양리 1732-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천226㎡, 연면적

1천990㎡ 규모의 2층 건물로 조성되며, 50개 이상의 점포가 입점할 예정이며, 개장 목표는 2028년이다. 당선작은 약 300m에 이르는 길고 좁은 부지의 특성을 반영해 점포와 이용 동선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열린 공간을 제안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암군은 인근에 조성 중인 '글로벌 하모니거리'와 삼호시장을 연계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등 삼호읍의 새로운 생활·상업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주민과 상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 내 소비가 이어지는 시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역건축사회, 건축물 해체관련 안전확보 등 방안 논의

건축물 해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해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박광성)는 지난 8월 27일 전북건축사회관에서 전주지역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해체, 안전을

계획하다"라는 주제로 건축물 해체시 안전과 책임을 중심으로한 실무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1,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1부 발제에서는 ▲육광돈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채담)가 '해체계획서 작성 실무전략'을, ▲신태용 건축사(바다 건축사사무소)가 '안전한 해체감리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일우 건축사(우연 건축사사무소)가 '안전·책임에 맞는 해체계획서 대가산정'을 발표하고, 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김윤경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 인)가 좌장을 맡아 안전과 책임 중심의 해체 실무 현안을 점검하고, 건축사의 합리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해체계획 수립 시 "사전조사 부실은 현장 사고의 시작이다"라는 원칙이 강조되었으며, 인접 건축물 상태와 지하 매설물, 도로 조건, 민원 가능성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됐다. 또한 해체 공법별 장단점과 위험 요소의 비교를 통해, 장비 배치·지반 보강·풍속 기준 등 세부 안전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박광성 회장은 "건축물의 신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한 해체"라며, "건축물 해체 작업은 단순한 철거가 아니라 도심 안전을 지키는 정교한 엔지니어링 과정인 만큼, 전주지역 건축사들이 앞장서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전주시 등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화된 실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지역건축사회 등 5개 단체,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성금 기탁

지역 건축사와 전주시 공무원들이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아



전주지역건축사회와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직렬별 모임이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성금 1,300만원을 전달했다. 전주시는 지난 8월 21일 부시장실에서 전주지역

건축사회(회장 박광성)를 비롯해 전주시 건조회(회장 변동현 건축과장), 전주시 전토회(회장 임정진 도시계획과장), 전주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박은주 복지환경국장), 전주시 다산회(회장 박이주 수질관리과장) 등 5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주지역건축사회와 건축직 공무원 모임인 건조회, 토목직 공무원 모임인 전토회, 사회복지직 공무원 모임인 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각각 300만원을 기탁했으며, 기계직 공무원 모임인 다산회가 100만원을 보태 총 1,300만원의 성금을 마련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주복지재단을 통해 화재 피해를 입은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활동 상인들의 시설 복구와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성금 전달은 지역 건축사와 전주시 공무원들이 피해 상인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지역 발전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힘쓰는 공직자들과 지역 전문가 단체가 뜻을 모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성금이 피해 상인들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초이앤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침하지반보강/복원
EcoSM 지반개량
마이크로파일
팽이기초공법
로타리파일(헬리컬)
강관압입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전주시 완산구, 건축인·허가 신속 추진 위한 업무 간담회 개최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진 = 전주시건축사협회 제공)

전주시 완산구는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건축인·허가 행정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구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완산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임숙희 완산구청장을 비롯한 완산구 건축과장, 협의부서 팀장 및 주무관 22명과, 박광성 전주시건축사협회 회장 등 건축사 11명,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을 최소화하여 속도감 있는 건축인허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허가 처리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1회 보완으로 건축인허가를 처리하는 '원스텝 건축인허가제' 설명 및 의견수렴 △신속한 건축인허가 처리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반복적인 보안을 방지하기 위한 개별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기타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의견 수렴 등이다. 특히 완산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협의부서와 건축사 간 주요 보완사항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민원인이 여러 차례 보완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착수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시민과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완산구는 오는 2026년 8월부터 10월까지 협의부서 및 건축사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7년 1월 이내 원스텝 건축인허가 체계를 구축·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 1월부터 건축인허가 담당자 대상 월 2회 직무교육을 실시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2월부터는 협의부서 및 건축사협회 간담회를 반기 1회 정례화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임숙희 완산구청장은 "건축인허가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시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행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필요한 보완과 협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건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주 회원동정

회원현황 : 477명 (2026. 9. 10. 기준)

- **변경(소재지)**
 - 이봉주 건축사 / 바우플랜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동구 천변우로 361-15, 814호
 - 최병민 건축사 / 이담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광산구 상무대로 287, 2층 202호
- **변경(상호)**
 - 이창울 건축사 / 청라 건축사사무소 → 지에이피엠 건축사사무소
- **결혼**
 - 김 현 건축사 / THE S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2026년 9월 19일(토)
 - 서영배 건축사 / 문화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6년 9월 12일(토)
 - 김한일 건축사 / 신라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6년 9월 5일(토)
 - 박홍근 건축사 /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6년 9월 6일(일)
- **부고**
 - 최경락 건축사 / 라일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6년 9월 6일(월)

전남 회원동정

회원현황 : 489명 (2026. 9. 10. 기준)

- **결혼**
 - 탁기봉 건축사 / (그룹)S&A건축사사무소 유일 / 자녀 결혼 - 2026년 9월 6일(일)
 - 정상택 건축사 / 네오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2026년 9월 5일(토)
- **부고**
 - 이종호 건축사 / 성진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6년 8월 10일(월)
 - 국원식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한신 / 빙모상 - 2026년 8월 9일(일)
 - 정운기 건축사 / (주)고려자산 건축사사무소 / 배우자 상 - 2026년 8월 28일(금)
 - 정하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FoOC / 모친상 - 2026년 8월 28일(금)

전북 회원동정

회원현황 : 531명 (2026. 9. 10. 기준)

- **입회**
 - 박영호 건축사 / 주안 건축사사무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싸리재로 10, 1층
- **변경(소재지)**
 - 배철용 건축사 / 환경그룹 건축사사무소 청 / 전북 익산시 하나로1길 35
 - 조수민 건축사 / (주)베르던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5길 27-5, 1층
 - 김만희 건축사 / 두인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역참로 71-2, 1층
- **변경(상호)**
 - 노일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지건축 → 건축사사무소 일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기술인 종합교육기관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보수교육

“해체감리업무를 위한 실무교육
세종·충남·충북·대전권 접근 편리”

세종

전주

광주

광양

세종·전주·광주·광양
편리한 교육 접근성!

교육 특징

- 기본교육·최초교육·
승급교육·계속교육
체계적인 교육과정
- 실무 중심의 전문 강사진
이론 + 현장 실무
노하우 전수
- 국토교통부 지정
공신력 있는
전문 교육기관

안전사고 예방

환경오염 최소화

비산먼지·소음·진동 관리

해체계획서 이행 점검

전문성으로 **안전**을 지키고,
교육으로 **가치**를 더합니다.

재단법인 대원산업기술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일정확인 | <https://www.hicte.or.kr/>
교육문의 | 062-513-0116

풍피두센터 한화 &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 답사기

임태형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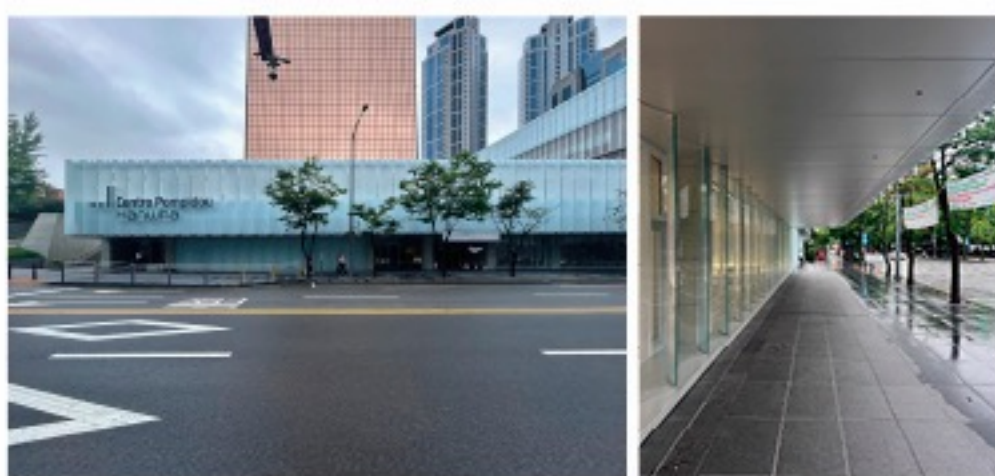


오랜만에 참여하기로 한 답사 목적지는 서울 여의도의 '풍피두센터 한화'(이하 풍피두)와 '현대백화점 더현대'(이하 더현대)라고 한다. 한 곳은 개점 초기부터 기존의 Mall 공간의 문법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시도로 주목을 받았던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이제 갓 준공하였지만, 프랑스의 풍피두센터와 국내 대기업이 협력해 설립한 한국 최초의 풍피두 브랜드 미술관으로서 그 화제성만큼은 더현대 못지않은 곳이다. 두 건축물이 각자 프로그램과 도시적 맥락에서의 대응 방식이 차이가 있지만, 여의도라는 입지와 국제적 위상을 지닌 건축가의 작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주제별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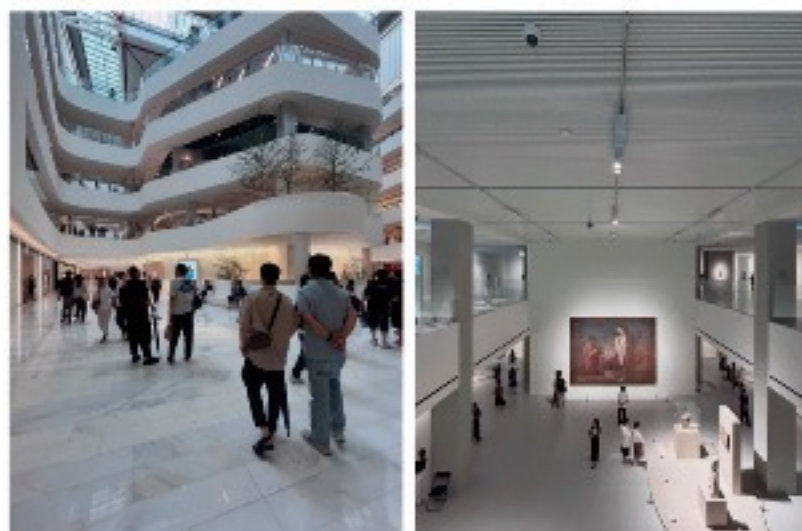
맥락과 배경

당초 국제금융복합단지인 파크원의 저층 쇼핑물로 계획된 현재 더현대 입점 공간은 당시 여러 분쟁과 자금난 등의 여파로 6년 이상의 방치 기간이 있었으나 오히려 이 공백이 더현대 입점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때 원 설계안에 없었던 사운즈 포레스트나 워터폴 가든, 빅보이드, 높은 공용공간의 개념이 적용되며 리처드 로저스 경이 구상한 도시적 구조에 삼우설계가 구현한 트렌드와 개념들이 조화를 이룬 멋진 공간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작품과 상품이 주인이 되는 곳

두 장소 모두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에 기여하는 공간이지만 모두 다 작품과 상품이 주목받도록 조성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기획 의도를 지닌다. 풍피두의 기획전시 '큐비스트'는 입체파의 태동에서부터 부흥과 영향력이 어떻게 20세기 예술사에 존재감을 지니게 되었는지 보여주며 마치 장대한 예술의 서사시를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라운지는 시민들이 누구라도 잠시 앉아 쉬거나 배회할 수 있도록 오픈하여 예술과 일상의 가치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공간을 구현하고 있다. 더현대에는 본격적인 상업공간답게 이름난 럭셔리 제품과 서비스들이 이목을 끌고 있었다. 막힌 공간이지만 천창에서 쏟아지는 자연광이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반 외부공간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상행위보다 방문객의 다양한 경험적 측면을 배려하고 있는 건축적 의도를 몸소 느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압도적인 개방감이 매력적이었다.



구조와 엔지니어링

더현대의 압도적인 개방감의 핵심은 무주(無柱)에 있다. 카이트 구조와 크레인 구조를 활용해 구현한 철골트러스 케이블 장력 구조가 이러한 무주 공간을 가능케 한다. 구조체를 그대로 드러낸 조형어휘와 하이테크 건축의 선구자로 알려진 로저스 경의 철학이 더현대의 공간 철학으로 연결되며 상승작용을 이루게 되었다. 더현대 공간의 특징이 구조 엔지니어링에 있다면 풍피두는 외벽 디자인에 가장 큰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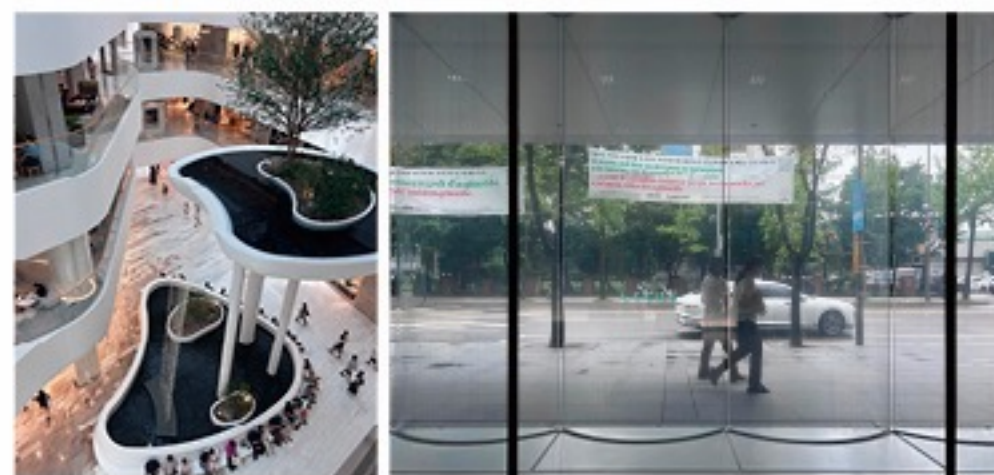
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63빌딩의 유려한 수직선에 더해진 풍피두의 새로운 수평선 조합은 뉴욕 마천루의 혁신이라 평가받는 레버하우스



(1952)를 연상시켰다. 아무래도 국제주의 양식의 영향을 받았을 당시의 건축이기도 하지만 빈약했던 기존 포디움의 볼륨감이 새로운 파사드로 덧입혀지며 적절한 수직, 수평선의 대비감을 구현했기 때문일 것이다. 저철분 반투명 곡면유리로 만들어진 더블스킨은 가로변에 처마와 같은 하부 공간과 그늘을 형성하고 다양한 빛의 속성을 컨트롤 해내며 도시와 건축 사이의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하고 있다. 실무에서 비규격 유리 및 특수구조의 설계적용이 창작의 한계로 다가오는 경우가 더러 있기에 해방감과 대리만족 그리고 부러움과 존경심이 동시에 일어났다.

환경성

일반 방문자들 입장에서 느껴질 더현대와 다른 공간과의 차별점은 역시 '환경'이라고 생각된다.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시간과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쇼핑에 여념 없던 분주함이 아니라 마치 날씨 좋은 날 어느 마을의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비된 상점가를 배회하며 여가를 즐기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경험은 바로 환경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자연광과 물소리 다양한 식물과 막힘없는 시야, 굴곡진 통로는 도시민들이 가장 목말라하던 자연을 오마주한 것이다. 풍피두의 '환경'은 작품 관람의 최적화와 함께 이웃하는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는 대체로 닫힌 구조이지만 관람 동선 말미에 조성된 포디움 상단의 조경공간이 한강으로 향하는 넓은 시야와 여유를 제공하고 1층 외벽은 투명유리를 통해 가로변의 보행자들과 내부 관람객들 사이의 시각적 교감을 유발하여 가로변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파사드와 디테일

막힌 벽과 열린 벽의 대비를 적절히 혼용한 두 공간은 유사한 듯 각기 다른 목적을 지향한다. 더현대의 외벽은 유리라 할지라도 내부가 투영되지는 않지만, 내부 상품을 부각할 수 있는 요소를 적용하여 공간의 성격을 외부로 드러내며, 풍피두의 외벽은 불투명과 투명유리를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도시와의 상호작용 및 프로그램의 성격을 디자인으로 승화시키고 공간의 새로운 정체성을 표출하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마치며

필자는 직접 현장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더라도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매력을 느껴 후일에 현장을 경험해 본 적이 더러 있다. 비록 짧고 부족한 답사이지만 존경하는 여러 건축사님들 또한 필자와 같은 마음의 움직임을 전달받았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글을 마친다.

제30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 ◎ **시상목적** :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설계로 지역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와 건축물을 발굴하고 시상하고 이를 통해 건축사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지역 건축 저변을 확대하며,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획도시」라는 시책의 아름다운 대미를 장식하고자 함.
- ◎ **시상근거** : 광주광역시건축조례 제45조(건축상 등)
- ◎ **응모대상** :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최근 10년 이내(공고일 기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 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각 시상 부문별 리모델링 포함) 다만, 광주광역시에서 이미 건축상을 받은 건축물은 제외함.



사회공공 부문 최우수상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설계자 : 노윤경 건축사 / (주)우리동인 건축사사무소
박제유 건축사 / (주)제이유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차귀석 대표 / 차원종합건설(주)
사 진 : 김재경 사진작가 / 김재경스튜디오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매곡동 산83-3 / 대지면적 : 83.019㎡ / 건축면적 : 4,241㎡ / 연면적 : 7,137㎡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사회공공 부문 우수상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설계자 : 정영법 건축사 / (주)로운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최형오 대표 / 기린종합건설(주)
사 진 : 임은덕 사진작가 / 디자인디오씨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옥동 251-3 / 건축면적 : 359.73㎡ / 연면적 : 911.50㎡
규모 : 지상 3층 /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폐율 : 58.19% / 용적률 : 149.42%

제30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 공모기간 :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 시상 구분 및 부상

- 시상 : - 사회공공 부문 : 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 최우수작(1점), 우수작(1점)
- 비주거 부문 : 민간 발주 건축물 중 비주거 건축물 / 최우수작(1점), 우수작(1점)
- 주거 부문 : 민간 발주 건축물 중 주거 건축물 / 최우수작(1점), 우수작(1점)
- 수여내용 : 설계자 ⇒ 상패 및 상금 / 시공자 ⇒ 상장 / 건축주 ⇒ 건축물에 동판 부착

◎ 심사일시 : 2026. 8. 11.(1차) / 2026. 8. 21.(2차) / 2026. 8. 21.(3차)

◎ 심사장소 : 광주광역시건축사회관 4층

◎ 심사결과 : 사회공공 부문 2점(최우수작 1점, 우수작 1점)

주거 부문 2점(최우수작 1점, 우수작 1점)

비주거 부문 2점(최우수작 1점, 우수작 1점)



주거 부문 최우수상 '이음재'

설계자 : 전승찬 건축사 / 에이작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진경아

사 진 : 정찬희, 김성희 사진작가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천동 160번지 외 1필지 / 대지면적 : 500㎡ / 건축면적 : 96.74㎡
연면적 : 272.16㎡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주요마감 : 로이복층유리, 송판노출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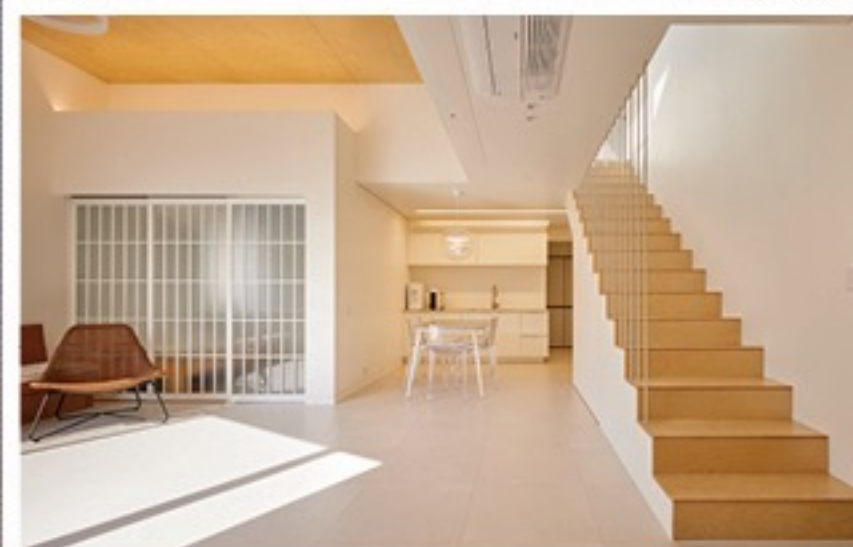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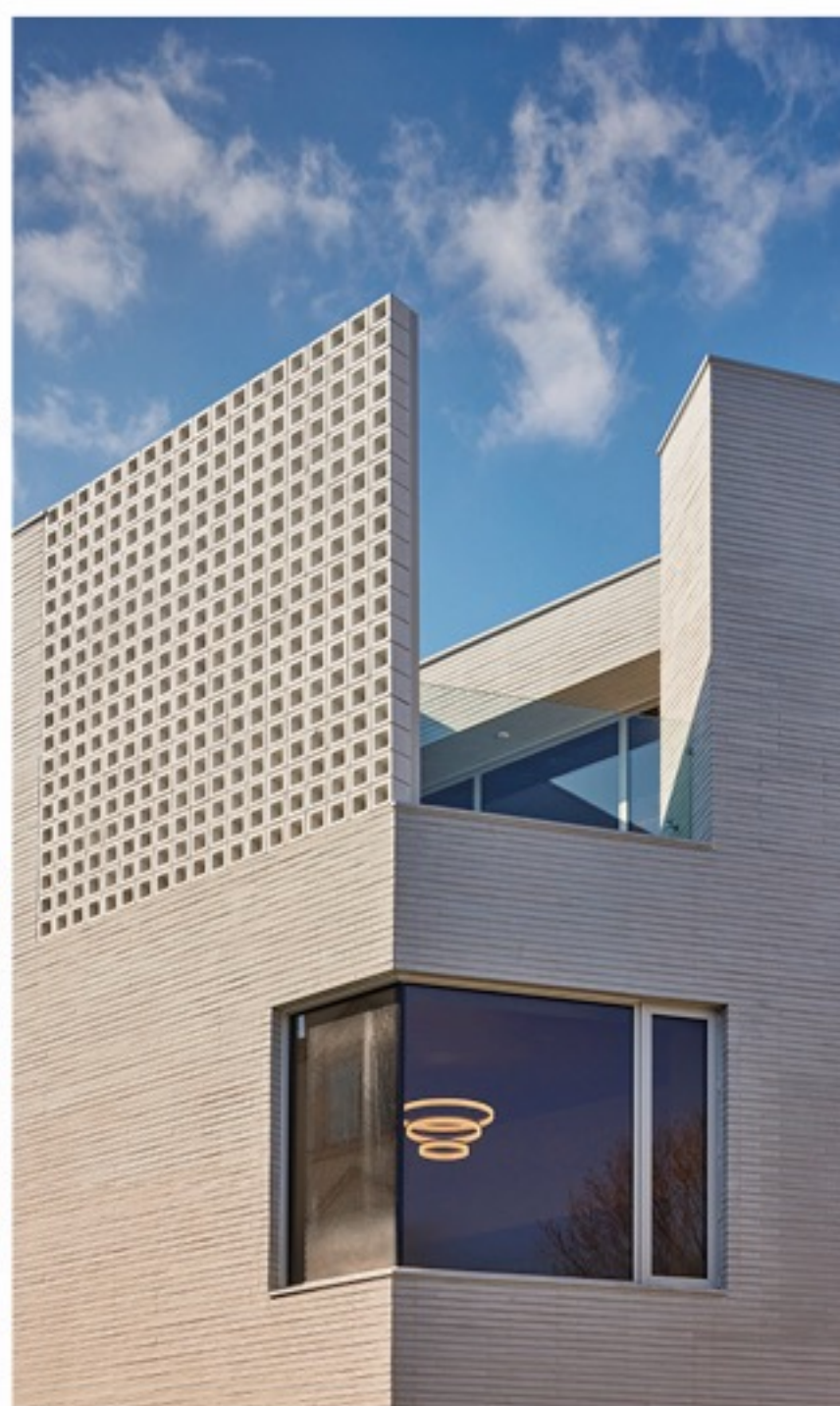


주거 부문 우수상 '모서리 벽돌집'

설계자 : 임태형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시공자 : 이현철 대표 / 디엠산업개발(주)

사 진 : 노경 사진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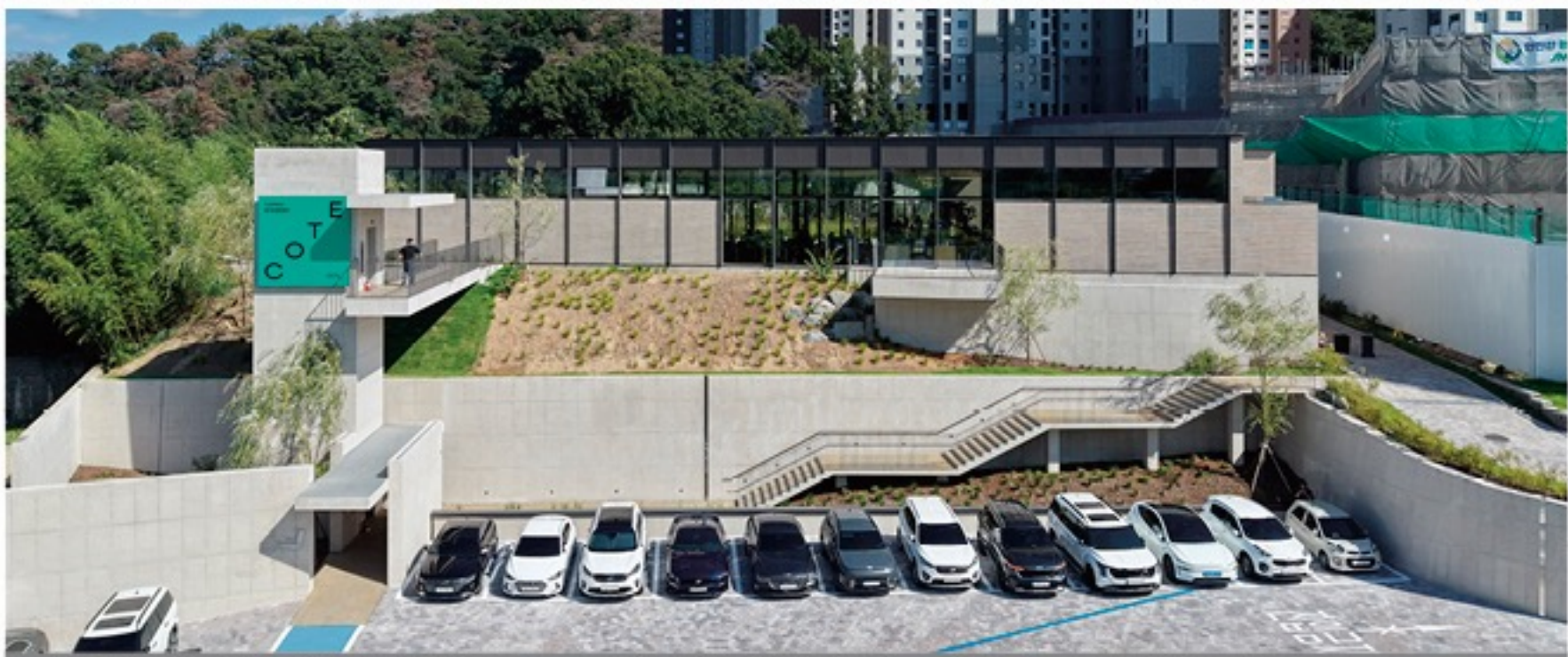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일곡택지로99번길 14 / 대지면적 : 175.40㎡ / 건축면적 : 105.16㎡
연면적 : 284.64㎡ / 규모 : 지상 3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주요마감 : 롱브릭타일, 로이복층유리 외

제30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 심사위원 :

소 속	인원	성 명	소 속	인원	성 명
광주전남건축학회	2인	송성욱 교수(순천대), 김경식 교수(전남대)	광주건축사회	2인	양병범 건축사(위원장), 허만수 건축사
광주전남건축가회	2인	최재영 교수(광주대), 이수용 건축사	전남광주시 건축경관과	2인	정승철 과장(건축경관과), 김일곤 팀장(건축경관과)

◎ 전시기간 : 오프라인 전시 - 2026. 10. 7.(수) ~ 10. 10.(토) / 온라인 전시 - 상시 관람
◎ 전시장소 : 오프라인 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1층 시민홀 / 온라인 전시 - 홈페이지(<https://gjfika.org>)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795-2번지 외 3필지 / 대지면적 : 5,248.20㎡ / 건축면적 : 949.76㎡
연면적 : 1,140.50㎡ / 규모 : 주1동: 지하1층, 지상1층 / 주2동: 지상 1층 / 주3동 지상2층 / 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비주거 부문 최우수상 ‘COTE’

설계자 : 정명환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지웃
시공자 : 해재영 대표 / 디오이앤씨(주)
사 진 : 정명환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지웃



비주거 부문 우수상 ‘광주기독병원 카딩턴라파 기념관’

설계자 : 박홍근 건축사 /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장구식 대표 / 남광건설(주)
사 진 : 김성희 사진작가 / 사진지기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림동 420번지 외 / 대지면적 : 2,525.00㎡ / 건축면적 : 1,238.02㎡
연면적 : 2,983.99㎡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용도 : 의료시설 외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